KOICA
한국국제협력단

OVERSEAS KOICA 코이카 한·콜 우호재활센터, 콜롬비아의 상처를 보듬다
WHAT'S ODA SDGS 7~9 (에너지 · 일자리 · 인프라) 실현을 위한 KOICA의 노력
KOICA STORY 지구촌 이슈 기후변화, 코이카가 나선다

지구촌 가족

2016. winter
Vol. 3
World's Friend KOICA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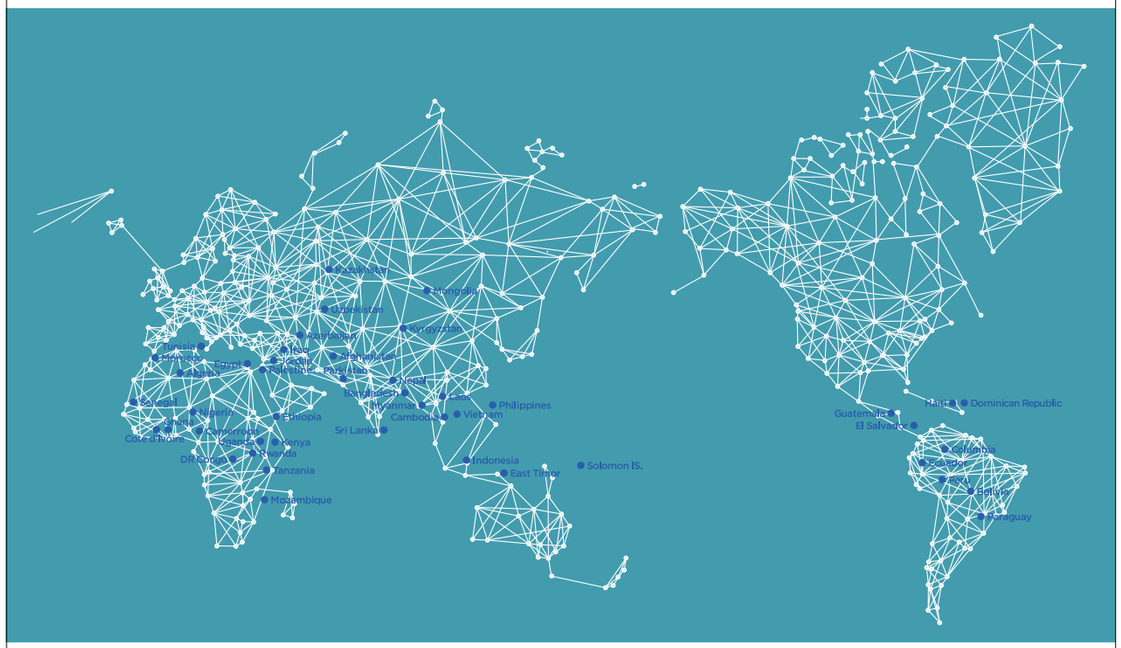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NK ODA, WITH KOICA
WWW.KOICA.GO.KR

ABOUT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및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그간의 개발협력 경험과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여 지구촌 공동 과제를 극복해 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인과 국격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자신들의 기술을 지구촌 이웃과 공유하면서 그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 회의 경제성장 모범사례이자 한국의 소중한 자산인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변형·확산 시키고자 합니다. 선진공여국, 신흥공여국, 국제기구들과의 협업을 통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수원국, 공적기관, 민간투자와의 포용적파트너십을 통해 중·하위 소득계층과 함께 성장하는 ODA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KOICA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지구촌 곳곳에 행복을 심어줄 수 있도록 KOICA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TENTS

2016. winter / Vol. 3

OVERSEAS KOICA
세계 속 코이카

04
KOICA 한·콜 우호재활센터
콜롬비아의 상처를 보듬다

07
티그라이 직업훈련학교 건립 사업
에티오피아에 '한국형 직업훈련학교' 건설

08
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 이식한
야운데 응급의료센터(CURY) 24시

WHAT'S ODA
ODA 알아보기

10
휴대용 첨단 무선 초음파 진단기
응급 산모 및 환자에게 '한 줄기 빛'

12
전기 없는 오지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아이들 미래에도 '파란불'이 켜지다

14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
"네팔에 커피나무를 심으세요!"

16
SDGs 7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를 위하여!

18
SDGs 8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21
SDGs 9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산업 인프라'



KOICA STORY
코이카 이야기

24
지구촌 이슈 기후변화
KOICA '기후 친화' 나선다

28
ODA와 아동보호정책은 불가분의 관계
KOICA, NGO단체와 손잡고 함께 뛴다

30
KOICA 국제기구협력사업
국제기구와의 협업 통해
지구촌 개발 현안 해결에 동참



World's Friend
KOICA

발행인 김인식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17-01-007
발행일 2017년 2월 14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462-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코이카 홍보실 **제작**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조광프린팅

코이카 뉴스레터 〈지구촌가족〉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KOICA 한·콜 우호재활센터
콜롬비아의 상처를 보듬다



콜롬비아는 지난 50여 년간 FARC, ELN과 같은 반군과의 내전으로 많은 젊은 장병과경찰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었다. 현재도 부상자들이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OICA는 콜롬비아에 한·콜 우호재활센터를 설립해 이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 재활 훈련뿐만 아니라 심리 안정 교육, 취업이나 창업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디아나 구티에레스 데 피네로 센터장과 재활 훈련에 한창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콜 우호재활센터'의 의미와 활약상을 전한다.

INTERVIEW

"한국의 발전된 재활 프로그램 노하우 배우고 싶어"

우호재활센터장 디아나 구티에레스 데 피네로(Diana Gutierrez de Pinero)



Q_언제부터 재활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센터장 부임 이전에는 어느 기관에서 근무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2월 우호재활센터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부임 이전에는 TELETON이라는 장애인 치료 및 재활센터, NGO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Q_현재 센터에는 몇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나요?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요.

"현재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5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신체 재활, 요가, 에어로빅, 심리안정, 읽기·쓰기, 플라스틱 공예, 컴퓨터, 영어, 요리, 음악, 댄스 등 14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매일 100~12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Q_훈련 교사들과 재활 훈련 신청자는 어떻게 모집하나요?

"재활센터와 여러 대학, 민간기업, 예술 및 스포츠 진흥원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들로부터 전문 인력을 추천받아 프로그램을 실시 중입니다. 현재 대학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모집 중인데 신청자가 많아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재활 훈련을 신청한 등록자가 1000명에 달하며 국군병원, 경찰병원, 일반병원, 국방부 등에 홍보하여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도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Q_내년도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확대할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80억페소(약 600만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 인력인 120명까지 충원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실질적인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전기, 기계, 컴퓨터, 제빵 분야의 기자재 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상 장비 구입이 어려운 분야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Q_KOICA나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와 KOICA의 종합 재활센터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의 발전된 재활 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직업치료,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또는 봉사단이 파견되기를 희망합니다."

INTERVIEW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아 재활에 큰 도움"

재활 훈련 중인 육군 병사 제퍼슨 알렉산더 이바라 가르시아
(Jefferson Alexander Ibarra Garcia)



Q_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9살로 10년간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에요."

Q_어떤 사고로 부상을 당하게 됐는지요?

"1년 3개월 전 톨리마(Tolima)주 카논 데 에르모사(Canon de Hermosa) 계곡에서 FARC(무장혁명군)와 전투 중에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고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팔과 가슴, 그리고 얼굴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 후 헬기로 이바게(Ibague)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어요."

Q_재활센터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아직도 국군병원에서 일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을 통해 센터에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2개월 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체기능 재활 훈련과 영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Q_재활센터 내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며 장래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재활센터는 종합적인 최신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 여건이 매우 쾌적하며 재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이나 직업치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기간이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Q_KOICA나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와 KOICA의 종합 재활센터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글·사진 장봉순(콜롬비아사무소 소장)

INTERVIEW

“컴퓨터나 휴대폰 수리 프로그램 더 확대됐으면”

재활 훈련 중인 전 경찰 윌마르 로하스 알라르콘(Wilmar Rojas Alarcon)



Q_나이와 출생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29살로 경찰에서 복무했으며, 고향은 보야카(Boyaca)주 소가모소(Sogamoso)입니다.”

Q_어디에서 어떤 부상을 당했나요?

“3년 전 경찰로 근무하던 중 과속으로 달리던 화물트럭 전복 때문에 왼쪽 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했고 수술을 통해 인조 다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Q_재활센터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경찰병원 내 홍보를 통해 재활센터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개월 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주간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 1주간 실시하는 소득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마쳤고 지금은 홈페이지 구축,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_재활센터 내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며 장래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재활센터는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재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향인 소가모소에서 호텔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수리 등 기술 분야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Q_KOICA나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와 KOICA가 콜롬비아에서 가장 우수한 재활센터를 지원해준 데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되어 운영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티그라이 직업훈련학교 건립 사업
에티오피아에 ‘한국형 직업훈련학교’ 건설

지난 8월 1일, 에티오피아 메켈레시에서 KOICA가 지원하는 ‘티그라이 직업훈련학교’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아바이 월두(Abay Weldu) 티그라이 주지사, 김문환 주에티오피아(한국) 대사와 도영아 KOICA 에티오피아 사무소장 등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식 축하 공연 및 착공식 세리머니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까지 550만달러를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직업훈련학교는 총 4개 동으로, 행정동 및 용접/배관/기계, 건설 및 목공, 섬유 및 의복 등을 교육하는 교육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만㎡ 부지에 6350.44㎡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은 직업훈련학교 건립뿐 아니라, 기자재 지원 및 전문가 파견과 초청 연수를 통해 직업훈련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 있지만, 국민 70~80%의 월급이 평균 10만~20만원에 머무는 등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직업 교육 시설의 국민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KOICA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한국형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 전수에 의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통해 에티오피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4년에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LG전자와 함께 ‘희망직업훈련학교’를 건립하였으며, 동학교에서는 IT 기기 수리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01
티그라이 직업훈련학교 착공식.
02
티그라이 직업훈련학교 조감도.

글 김준수(에티오피아 사무소 부소장)

카메룬의 야운데 응급의료센터에 관한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6년 12월호 '세계 속 코이카'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612/content.php?code=201612_010102



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 이식한
야운데 응급의료센터(CURY) 24시

응급의료시스템 불모지였던 카메룬에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꼭 빼닮은
'야운데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KOICA가 카메룬 보건부와 협력해 진행해왔던
국립응급의료센터 설립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
카메룬의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각광받고 있는 야운데
응급의료센터의 이야기를 전한다.

한국의 응급의료환경이 현재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계기는 사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미국의 응급시스템을 학습하여 구축하면서부터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카메룬의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립하는 모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KOICA는 카메룬 보건부(MINSANTE)와 협력해 지난 2010년부터 카메룬의 수도인 야운데에 응급의료센터를 짓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미국대사관 및 프랑스대사관의 적극적 협조 아래 '야운데 응급의료센터(CURY)'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성공적 개원을 마쳤다. 개원 이후에는 꾸준히 글로벌 협력 의사 및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원조를 통해 카메룬이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URY는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세계응급의학회의 거점 협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카메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카메룬 전 지역은 물론 중부 아프리카로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정중식 박사의 지휘 아래 박광호(107기 방사선) · 손아름(107기 간호) · 임보미(107기 간호) · 김현미(111기 간호) · 황교빈(111기 간호) 단원이 CURY에서 근무 중이다.

CURY의 빛나는 활약상

활약 01_카메룬 야운데~두알라 열차사고 때 기민한 대응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는 약 2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카메룬 내에서 가장 교통사고율이 높은 도로인 야운데~두알라(Douala), 야운데~바푸삼(Bafoussam) 구간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아래에서 야운데 응급의료센터는 수많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돌보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 10월 21일 야운데에서 출발하여 카메룬 최대 상업도시인 두알라로 향하던 열차가 탈선 및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10월 24일 기준 최소 75명이 사망하고 57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6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KOICA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한 야운데 응급의료센터는 이 열차사고의 부상자 후송을 위한 병원으로 지정되어, 외상 환자들에 대한 응급치료를 실시하는 등 맹활약하며 한국과 카메룬 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활약 02_카메룬 축구 영웅 리고베 송을 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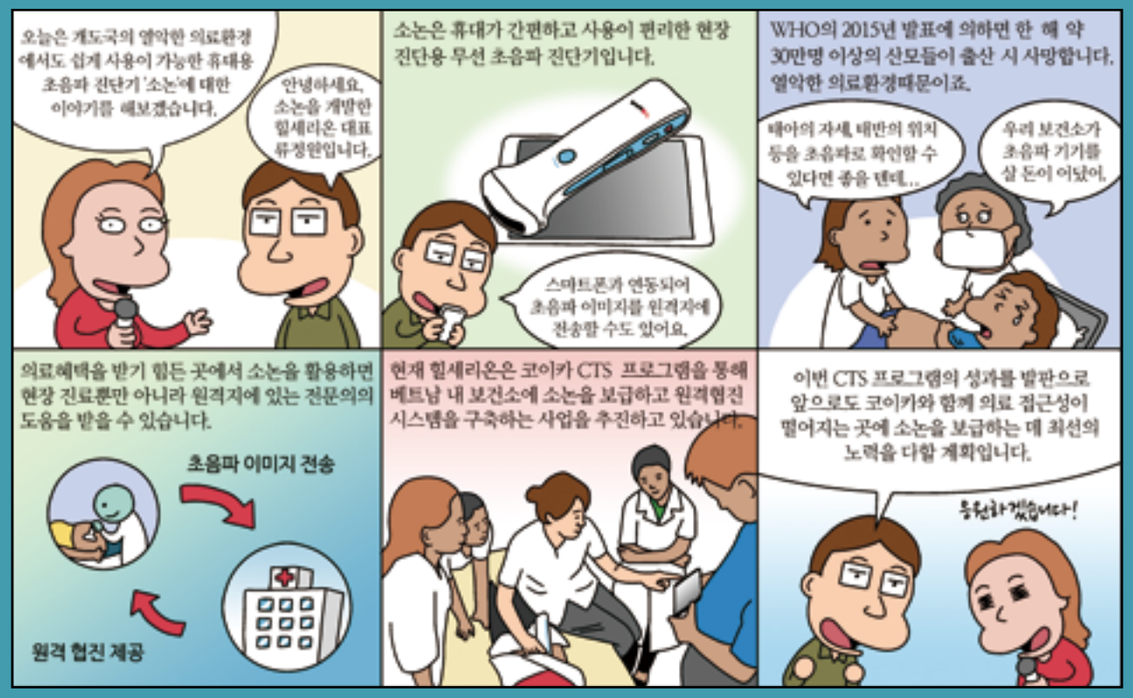
카메룬 국민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터를 지날 때면 아침저녁으로 삼삼오오 모여 공 차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월드컵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컵 등 크고 작은 축구 경기가 있을 때면 길 위를 달리는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카메룬 국기가 펄럭인다. 지난 10월 카메룬 축구선수 리고베 송(Rigobert Song)이 야운데 응급의료센터로 실려왔다. 리고베 송은 카메룬 축구 영웅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며 138경기에 출전해 16득점을 기록했다. 이는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팀 역사상 가장 많은 A매치 출전 기록이다. 더불어 송은 1994년 월드컵과 1998년 월드컵,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2002년 월드컵, 2003년 컨페더레이션스컵, 2010년 월드컵 등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했는데, 2002년 월드컵 때는 카메룬 대표팀 주장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CURY에서 송은 성공적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프랑스로 이송되었다. CURY의 활약을 통해 축구를 사랑하는 카메룬 사람들에게 한국의 ODA와 협력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일련의 사건들은 야운데 국립응급의료센터를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카메룬 정부는 한국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연수초청사업 진행으로 이어지며 의료시설 불모지인 카메룬에 양질의 씨앗을 제공하게 되었다.



01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중식 박사.
02
야운데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던 축구선수 리고베 송.

글 하영은(카메룬사무소)
사진 카메룬사무소

||| KOICA의 CTS 사업, 의료 불균형 문제에 도전하다



휴대용 첨단 무선 초음파 진단기 응급 산모 및 환자에게 '한 줄기 빛'

의료시설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부지기수. 이를 위해 ㈜힐세리온은 무선 초음파 진단기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응급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 작은 기기의 활약에 주목하자.

세계보건기구(WHO)의 2015년 발표에 의하면 한 해 약 30만명 이상의 산모들이 출산 때문에 사망하고, 17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통사고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산전 진찰에서 태아 심장 박동, 머리 크기, 자세, 쌍둥이 여부, 태반의 위치 등으로 인한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중 많은 산모를 살릴 수 있다. 또한 재난 재해, 교통사고 등의 외상에서 복부 내 장기 출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응급 지혈 등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초음파 진단 기기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싼 가격에다 크고, 무겁고, 유지보수가 어려워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만삭의 산모를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해서 이러한 의료 불균형 문제에 도전을 시작했다.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보급에서 의료교육까지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인 개발로 풀고자 하는 최근의 국제 개발 경향을 반영한 KOICA CTS 프로그램은 힐세리온의 모성 사망 및 응급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힐세리온의 무선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소논'은 초음파 이미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그 자리에서 진단하고 저장할 수 있고, 초음파 이미지를 통신망을 통해서 원격지에 전송할 수 있다.
소논을 활용한 CTS 프로그램 대상지인 베트남 꽝찌성 흐엉호아현은 베트남전쟁 당시 휴전선이면서, 라오스 등의 국가와 접경 지역이라 베트남 내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번 CTS 프로그램을 통해 흐엉호아현 2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이미 초음파를 확보하고 있는 4곳 이외의 보건소와 지역 거점 병원에 소논을 보급해서 1차 의료 향상을 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국립 중앙의료원 의사들과 공동으로 산전 진찰, 응급, 조기 검진 등에 대한 기본 교육과 보수 교육을 마쳤고, CHW(Community Health Worker) 150명에 대한 기본 교육을 완료했다.
또한 이번 CTS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에 구현된 mHealth(mobile Healthcare) 플랫폼을 이용해서 초음파 이미지를 보건소 의사 및 거점 병원 전문의와 연계해 원격 협진을 구축한다. 초음파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교육에 있고, 이번 mHealth 플랫폼은 초음파 초보 의사들에게 원격 협진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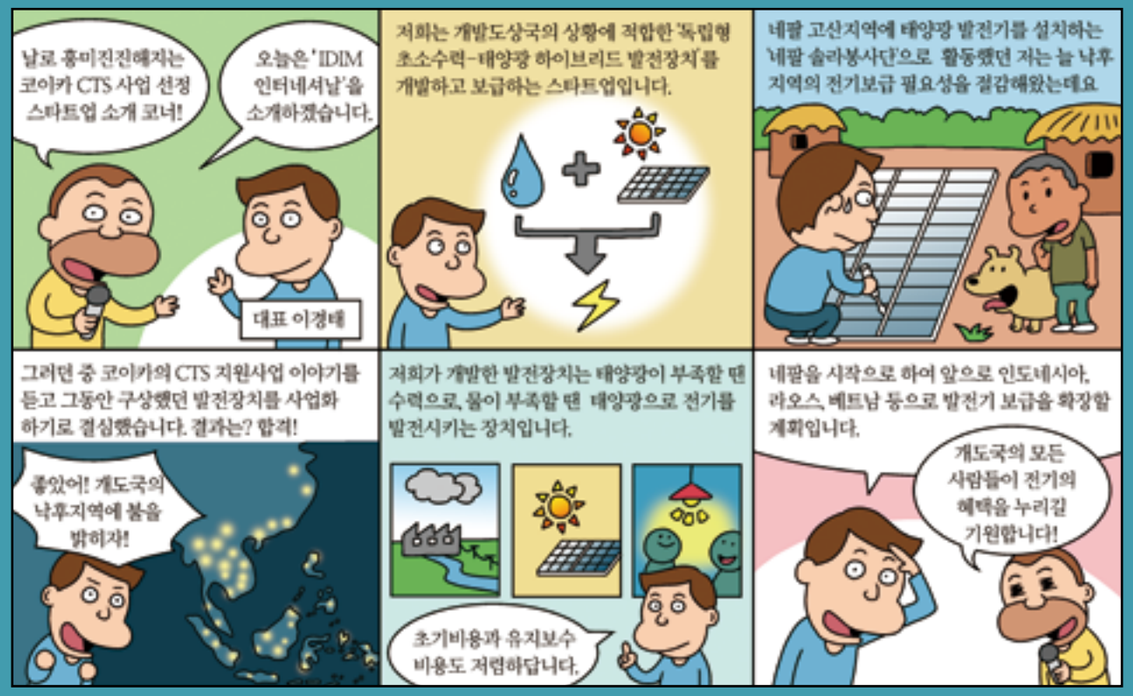
01
작년 CTS 1기 선정기업인 힐세리온의 초빙 전문의가 베트남 보건소 의료진에 모바일 무선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2
힐세리온의 무선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하여 현지 보건소 의료진이 산모를 진찰하고 있다.
03
무선 초음파 진단기 사용 교육을 받은 CHW 단체사진.
04
108군병원과 양해각서 체결식.

응급 현장에서 문제점 즉시 찾아 후속 조치 가능

이번 산전 진찰 교육을 받고 소논을 지급받은 탄 보건소 의사 후(Huh)는 12주 된 산모의 아이가 사산된 것을 진단, 바로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 위험할 수 있는 산모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른 환자의 신장 결석을 진단해 역시 상급 병원에서 추가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 분야의 성과 외에 힐세리온은 꽝찌성 인민위원회, 108군병원, 백마이 및 후에 센트럴 병원과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베트남 내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현지 총판업체인 한솔베트남과 향후 3년간 150만달러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힐세리온은 이번 CTS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판으로, KOICA와 함께 모자보건 프로그램 및 USAID/WHO의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글 류정원(힐세리온 대표)
만화 홍세훈 작가

||| KOICA의 CTS 사업, 낙후지역 에너지 보급에 힘쓰다



전기 없는 오지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아이들 미래에도 '파란불'이 켜지다

기술이 주는 장점은 단순히 편리함에 머물지 않는다. 그 작은 편리로 인해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와 꿈을 얻는 것.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기 위해 독립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는 ㈜IDIM의 이야기를 전한다.

2011년부터 네팔 솔라봉사단(Nepal Solar Volunteer Corps)은 네팔 고산 지역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공대생으로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봉사단 활동에 창단 때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개도국을 직접 겪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전기가 없는 산악 지역 마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고, 밤을 밝힐 수 있게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큰 보람을 느꼈다. 그때 이후로 매년 네팔 산악 마을에 전력을 보급하는 활동을 해왔다.

영화 · 내셔널지오그래픽 보며
외부 세상 노크

그렇게 매년 네팔을 가다 보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아이들이다. 한 나라를 한 번만 갔더라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갔을 때,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노는 꼬마들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어른들은 달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하루 종일 노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행복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꿈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직감할 수 있었다. '아 여기 아이들은 이 마을에서 어른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겠구나.'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게 된 지역은 달랐다. 아이들은 발리우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을 보며, 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동물들과 풍경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의 꿈은 더 이상 고산 지역 마을에 갇혀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단순한 봉사활동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세워 지속적인 사업으로 키워 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도 바로 그때였다. 이후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필요한 역량들을 키워왔다.

자그마한 아이디어가 KOICA CTS를 만나 '개화'

대학안에 갇혀 있던 조그마한 사업 계획이 KOICA CTS를 만나 날개를 달게 되었다.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 시제품을 만들었고, 개도국 현지에서 시제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ODA 사업과 관련된 많은 분들도 만날 수 있었다. 공학만 공부했던 필자로서는 KOICA CTS 사업 덕분에 좋은 분들을 만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타 분야와의 협업, 융합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CTS 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국가 전력망이 들어오지 않는 낙후 지역에 독립형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설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네팔 현지의 2개 마을 약 180여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네팔 현지 특성상 풍부한 수자원을 기본으로, 부족한 전기는 태양광으로 충당하는 배터리가 없는 시스템은 단순히 밤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규모의 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마을 사람들이 발전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등으로 그 대상 국가 및 지역을 넓혀 가고 있다.
개도국에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주민들의 빈곤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의료 및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KOICA CTS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이제 본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언젠가는 개도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세상을 더욱 밝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01, 02
KOICA CTS 사업을 통해 전기를 쓸 수 있게 된 네팔 오지의 마을 사람들.


01


02

글 이경태((주)아이디아이엠인터내셔날 대표이사)
만화 홍세훈 작가

||| KOICA의 CTS 사업, 커피나무로 네팔 농가를 키우다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 "네팔에 커피나무를 심으세요!"

1년 동안 1000여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농장주가 되어, 3만3000그루의 커피나무 묘목을 길러냈다. 일명 '커피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의 자연과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트리플래닛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5년 4월, 네팔 전역을 덮친 7.8도의 대지진. 모든 생활 터전과 기반시설이 무너진 가운데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은 곳이 있었다. 바로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나무 농장'이다.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큰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커피나무는 네팔 농가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트리플래닛은 네팔에 커피나무를 심음으로써 네팔의 자연환경과 농가 커뮤니티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진 피해 딛고 농가 소득 높일 수 있는 최적 아이템

커피나무 농장이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무의 힘'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토지를 개간해야 하는 반면, 커피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와 함께 섞어 심으면 더 잘 자란다. 따라서 커피나무 농장에는 다른 농장과는 달리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 함께 자라게 되고, 이 나무들이 뿌리로 힘 있게 땅을 잡아주어 지진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다.

네팔은 커피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생산 설비가 부족하고,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성이 낮고 품질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곧 국제시장에서의 외면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네팔 커피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점차 내수 수요가 증가하고, 커피산업에 윤리적 소비 개념이 등장하면서 한편으로 네팔 커피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무 심는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네팔에 커피나무를 심고 설비를 갖추어 농장을 만들었다. 농장에서 수확한 커피를 수입하여 펀딩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크라우드 파밍'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또한 '농장을 함께 만든 당신이 바로 농장주이고, 이 농장이 바로 당신의 농장'이라는 의미로 프로젝트에 'Make your farm in Nepal'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Make your farm in Nepal' 프로젝트로 농장과 가공센터 조성

좋은 의도와 아이디어, 그리고 열정이 있었지만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KOICA CTS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었다. ODA에 관한 교육과 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신 CTS팀, 네팔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지 사무소 사람들, 30여 년간 네팔의 커피 농업을 연구해온 사람들, 네팔 커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커피 브랜드 사업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었다.



01
지난 8월 10일, 트리플래닛과 누와코트 커피 농가 협동조합 농부들이 커피 가공센터 착공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네팔 티&커피 보드와 스위스 NGO 헬베타스, 마을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02
지난 11월 17일, 트리플래닛의 농장 조성지인 일람 지역 피칼마을 초등학교 어린이들. 'Make your farm in Nepal' 프로젝트의 수익 일부를 학교에 투자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하고,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가게 한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우리는 'Make your farm in Nepal' 프로젝트를 통해 1000여 명의 농장주를 만났다. 네팔의 동쪽, 일람 지역 피칼마을에 묘목장과 농장을 조성했고, 현재 약 3만3000그루의 1년생 커피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다. 카트만두와 가까운 누와코트 농장에는 2층 규모의 커피 가공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며 12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커피 재배법과 가공법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커피 농가의 소득이 3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Make your farm in Nepal'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농장 조성, 발전은 물론 수익금 일부로 마을 초등학교를 후원하고 농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등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함께 심은 커피나무들이 네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나 지진의 피해를 줄여주길 기대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농가의 삶이 개선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사노동 대신 학교에 나와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정인철(트리플래닛 이사)
만화 홍세훈 작가

SDGs 7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를 위하여!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17개 가운데 Goal 7은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 현재 지구촌이 안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이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자.



Part 1.

연료 문제 이대로 괜찮나요?

환경오염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평등까지

지구상 약 30억 인구는 취사 및 난방으로 전통적 고형연료인 나무 땔감, 숯, 가축의 배설물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매년 약 430만명은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연기로 사망하고 있으며, 고형연료 사용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블랙카본(전체의 약 25%)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인구 70억명 중 약 13억명은 현대문명의 가장 기초적 이기인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전력소비의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과 아프리카의 같은 전기량 소비, 다른 책임

한 예로 뉴욕시와 아프리카 지역의 전력소비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8억 인구가 소비하는 전체 전력소비량과 미국 뉴욕시에 살고 있는 단 2000만명이 소비하는 전체 전력소비량(약 40TWh)이 같다. 기존의 화석연료는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선진국들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된 온실가스는 지구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기후변화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다. 하지만 피해의 대부분은 환경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저개발국 및 군소 도서국들이라는 점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도와야 하는 당위성을 말해준다.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도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약 13억 인구 수는 현재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선진국이 개도국 및 기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art 2.

SDGs 7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이를 실현하기 위한 KOICA의 노력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KOICA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전력 소외계층에 현대적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전력불평등을 해소하여 현지주민 삶의 질 개선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KOICA는 갈라파고스에 1.5M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노후된 디젤발전소를 대체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늘어나는 전력수요 대응과 함께 주민복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외에도 동티모르에 태양광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스리랑카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소 건립,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지에서 소수력발전소 건립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였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이집트 배전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ICT 기반의 배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전시간을 감소시키고 배전공급 신뢰도를 높여 에너지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 사업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사업 대상지 평균 고장 복구 시간이 기존 83분에서 3분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전력생산 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력 소외지 기초전력 보급

KOICA는 방글라데시에 경제적 또는 기술적 제한으로 중앙전력망에 연계가 불가능한 전력 소외지역 7곳에 가정용 태양광 홈시스템(SHS)을 1250기 보급하고,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지하수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2개 마을에 독립형 태양광발전소 및 태양광충전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전력을 보급하는 등 전력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전력 보급 사업을 진행하였다.



글 기경석(기후환경팀 과장)



01

SDGs 8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KOICA, 기업들과 손을 잡다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 17개 가운데 Goal 8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다.
이를 위해 KOICA는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용창출과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UN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지속가능한 목표 중 8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지속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이다. KOICA 또한 협력 대상국별 산업 및 시장 구조를 파악하여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KOICA의 민관협력·기업협력 프로그램 사업들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을 접목해 협력국의 산업별 가치사슬을 보완하거나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직업훈련원 사업이 있다. KOICA의 파트너 기관들은 협력국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직업훈련원 졸업생들은 숙련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성장하고, 협력국 내 산업군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는 KOICA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각 기업의 전문성과 특성이 반영된 직업훈련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KIA-KOICA 그린라이트 센터'로 지역 자립 도모

KOICA와 기아자동차는 KOICA의 에티오피아 개발협력 전략이 목표하는 '숙련 기술자 양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과 에티오피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된 '노동시장 수용에 적합한 여성 및 청년층 숙련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와 연계해 '에티오피아 직업역량개발 및 지역자립 사업 : KIA-KOICA 그린라이트 센터'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시의 대표적 빈민지역인 리데타구에서 추진 중이며, 기아자동차는 직업훈련원 건립, 자동차 정비 부문의 전문인력 투입과 실습용 엔진 및 관련 부품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80명의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며, 이들은 향후 현지 자동차 정비 분야에 취업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예정이다.



02

01
에티오피아 'KIA-KOICA 그린라이트 센터' 기공식.
02
KOICA와 독일 원조기관 GIZ, 삼성전자가 협력해 신설한 가나 여성 전자정비공과의 학생들.

가나에선 삼성전자와 손잡고 여성 인력 양성

KOICA와 삼성전자는 독일의 원조기관 GIZ와 함께 가나에서 4개의 직업훈련학교에 전자정비공과를 신설하여 2015~2017년간 매년 120여 명의 여성 공인 전자정비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가나 전자분야 여성 직업훈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4%인 가나의 공인 전자정비사의 여성 비율을 2017년에는 30%로 증대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 사업은 '제4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글로벌 CSR 부문 정부포상 공모'에서 삼성전자 가나 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본 사업은 전자정비 분야의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인력의 성평등 환경 제고에도 기여한 측면을 인정받아 GIZ 내에서는 Gender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LG전자는 에티오피아에 IT 기술 전수

KOICA와 LG전자는 2013년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직업학교 건립 운영 사업'을 실시하며 전자, IT 및 컴퓨터 기기 수리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2013~2014년에는 직업학교를 건립하고, 2014년 11월에 개교하여 전자기기 수리 2개 반, IT기기 수리 1개 반 등 총 3개 반으로 전문기술능력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직업학교 학생들의 국가자격증 시험 통과율이

글 임한나(혁신파트너십사업팀 직원)

에티오피아 국가 평균인 60%를 크게 웃도는 9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졸업생이 300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의 75% 이상이 취업 혹은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사의 기술명장을 에티오피아 직업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고급 기술교육을 직접 전수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우수 학생에게는 중동 지역 거점 사무소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등 자사의 전문성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캄보디아 청소년에 정비 기술 교육

KOICA와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 2014년에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사업 : 드림센터'를 실시하였다. 2016~2017년에는 캄보디아에서 2014년 사업의 후속 연계사업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캄보디아의 자동차 산업 규모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캄보디아의 자동차 수가 2012년 말까지 23만1352대가 등록되어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가 증가한 것에 착안해 사업을 기획하였다. 현대자동차 본사는 2011년 캄보디아 대리점을 통해 코콩 지역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자동차 정비를 위한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4년 캄보디아 국립기술교육원과 파트너십을 맺어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대자동차만의 직업기술 훈련 교육 모델 보급과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어, 단순 인력 양성만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기획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KOICA는 여러 산업군의 기업들과, 기업들이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에서 단기적으로는 양질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산업군의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앞으로 KOICA는 보다 더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협업하여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앞장설 것이다.



SDGs 9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산업 인프라' KOICA, 개도국 '도약 교두보' 구축에 손길

경제산업 인프라는 경제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혈관과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을 추진하는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Goal 9은 한 국가의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세부목표와 지표의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자.



인류와 한길을 걸어온 경제산업 인프라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한 콩고의 사람들은 시장이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더욱이 비라도 내리면 길은 진흙밭이 되고, 아픈 주민들은 병원에 제때 갈 수 없어 2차 감염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다. 다른 예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철광·금광 등의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수출하려 해도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항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어느 누구라도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경제산업 인프라는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혈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발전은 적절한 경제산업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참고문헌
1) 김영목, 2015, 〈공적개발원조(ODA)와 교통물류산업의 해외진출〉, '교통'에서 인용

글 김병은(기술총괄팀 차장), 원종준(기술총괄팀 과장)

빈곤퇴치 수단으로서의 경제성장

지난 2015년 채택된 SDGs의 9번 목표로는 '회복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포함하고 있으며, SDGs 내 다른 목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문(ICT) 및 대상국가(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국 등)를 한정하고 있다.

KOICA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공식 채택된 이후 6대 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물·교통·에너지, 산업인프라)와 범분야(젠더, 기후변화,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중기(2016~2020)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SDGs 9 세부목표 및 지표

9.1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인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및 국경 간 인프라를 포함하는 양질의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

4계절 사용 가능한 도로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 비율

9.2
국내적 상황에 맞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2030년까지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산업 부문의 점유율 확대 (최빈국은 2배 향상)

–

총 GDP 및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비율

9.3
개도국에서 소기업과 기타 기업들의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편입 증대

–

총 산업의 부가가치 대비 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율

–

소기업의 대출 및 신용한도 비율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 역량에 맞춰 자원 활용 효율성 증대와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산업 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한 인프라 및 산업 개선

–

부가가치 1단위당 CO_2 배출량

9.5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인구 100만명당 R&D 연구인력 증원, 민간 및 공공 부문 R&D 지출 증대, 과학기술 연구 강화 및 산업 부문 기술역량 개선

–

GDP 대비 R&D 지출 비율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국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실현

–

인프라에 대한 총 공적개발지원 비율

9.b
산업 다각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화 등 적정 정책 환경 조성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 기술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9.c
2020년까지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향상과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정한 접근성 공급

–

기술단계(2G, 3G)별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인구 비율

출처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및 Official List of Proposed SDGs Indicators (2016.03),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바탕으로 재작성

미얀마·베트남 등에 도로 건설·교통 시스템 지원

KOIC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상 거점 지역 또는 시설의 기능 연계 강화, 교통약자(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에게 생활형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건강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기여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 국토균형발전, 국토공간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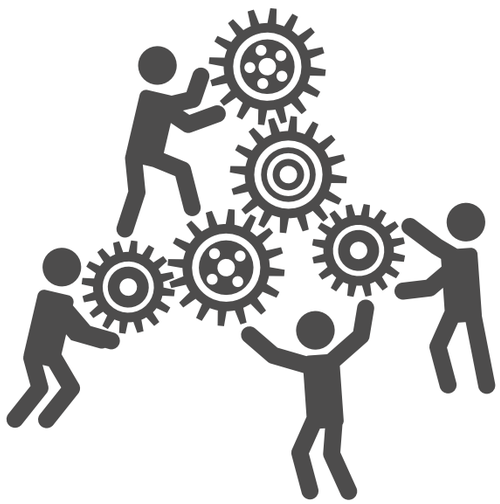


경제산업발전 지원 및 교통접근성 향상 지원

-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MP) 수립 사업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 타당성조사(FS) 사업
-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한국순환도로 건설 2차 사업
- 라오스·베트남 연결철도 타당성조사(FS) 사업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구축 지원

- 베트남 호찌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 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 사업
-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구현 노력



KOICA는 우리 정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Better Life)' 구상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혁신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기반 경제'를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STI for Better Life' 구상의 주요 수혜자는 수원 협력국의 이공계 인력, 중소기업 및 사회혁신가, 여성과학기술자 및 기업가 등이며, 2016~2020년 5년간 2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지원

- 베트남 한·베 과학기술연구소(V-KIST) 설립 지원 사업
- 에콰도르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창업 지원 및 기술이전센터 건립 사업
- 페루 ICT 기반 지역혁신시스템 강화 사업
-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 등

KOICA ‘기후 친화’ 나선다



오늘날 기후변화 문제는 정치, 경제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KOICA는 ‘기후 친화적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및 재해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글 이길석(기후환경팀 직원)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6년 12월호 ‘코이카 이야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612/content.php?code=201612_010307

PART 1

기후변화의 대표적 현상 :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현상의 빈도와 영향이 커졌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열파와 홍수가 흔해지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은 열대성 사이클론과 관련한 폭풍해일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켰다.”

–페테리 타알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지난 11월, UNFCCC COP22에서)

WMO는 쿠웨이트(54℃), 이라크(53.9℃), 이란(53℃) 등지의 이상고온 현상, 북극권 러시아의 평균기온 6~7℃ 상승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기상 이변을 제시했고, “올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2℃ 상승한 수준”이라며 2016년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온실효과를 꼽을 수 있다. 온실효과는 대기권의 온실가스가 태양의 복사열을 가두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로,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온실효과가 과도해진 결과로 지구온난화가 야기되었다는 견해가 대체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인류의 책임 의식 및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일각에선 기후변화를 인간의 행위에 기인하기보다는 지구의 천체역학적 주기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한다. 현재까지 총 5차례(1990, 1995, 2001, 2007, 2014)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온실가스 농도 증가임을 점점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

IPCC 보고서가 밝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과거 50년에 걸쳐 관측된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일 가능성이 높다.
(Most of the observed warming over the last 50 years is likely* to have been due to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 3차 보고서(2001) –

“20세기 중반 이후의 온도 상승의 원인은 인간이 발생시킨 온실기체 농도 증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Most of the observed increa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s since the mid-20th century is very likely* due to the observed increase in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 4차 보고서(2007) –

“1950년 이후 온도 상승의 주원인은 인간의 영향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It is extremely likely* that human influence has been the dominant cause of the observed warming since the mid-20th century.)”
– 5차 보고서(2014) –

PART 2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이 협약의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인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온실효과가 증대되며 이것이 지표면 및 대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생태계와 인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첫 문장 –

UNFCCC는 1992년 5월 9일에 채택됐고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COP3(1997 · 일본 교토)에서 채택됐고 2005년에 발효되어 2008~2020년 동안 각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2020년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COP21(2015 ·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0년 이후를 이끌어갈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합의했다.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 비준 당사국 중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2012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1990년 대비 5.2% 의무감축량 제시
- **교토 메커니즘** :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배출 목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이행체계로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와 배출권거래제(ET)를 포함

파리협정 주요 내용

- **2℃**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모든 당사국은 각국의 기여 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
- **시장 메커니즘 확대** : 기존 교토 메커니즘 이외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설립
- **기후 재원 마련** : 개도국을 위한 재원으로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약 118조원) 조성









제22차 당사국 총회는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행동총회(COP for Action)로서, 각 당사국은 2018년까지 파리협정의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며 기후행동(Climate Action),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강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COP22 기간(2016. 11. 7~18) 중 치러진 미국 대선(2016. 11. 8~9) 결과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시사해왔기에 협정의 성공적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파리협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 중이며, 인간 행위와 기후변화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을 내건 COP22가 폐막한 시점에서 다소간 희망을 주는 인터뷰 내용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사회 이슈는 트럼프 당선인 및 미국의 태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PART 3

KOICA의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책

파리협정이 있기 약 두 달 전, 제70차 유엔총회(2015. 9 · 미국 뉴욕)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했듯이, SDGs는 MDGs(새천년개발목표 · 2000~2015)를 대체하는 목표이자 2030년까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나갈 목표로 설정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은 SDGs 17개 목표 중 13번째 주제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국제사회 이슈로 범 분야와 연관되어 SDGs의 다른 목표에도 폭넓게 제시되어 있다.

KOICA '기후 친화적 개발' 프로그램은 KOICA SDGs 5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 달성에 개도국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KOICA는 '기후 친화적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및 재해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 이슈에 부응하는 데 공헌해나갈 것이다.

❶ UNFCCC 지정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

❷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COP1(1995 · 독일 베를린), COP2(1996 · 스위스 제네바)를 시작으로, COP21(2015 · 프랑스 파리) 및 지난 11월 COP22(2016 · 모로코 마라케시)에 이르기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ODA와 아동보호정책은 불가분의 관계

KOICA, NGO단체와 손잡고 함께 뛴다

MDGs를 마감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ODA의
가장 큰 방향성은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것.
이 '지속가능'이란 조건을 완성시키는 실질적인 주체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아이들이다.
따라서 ODA 정책에 있어서도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KOICA의 시각과 노력을 전한다.



아동보호는 장기적으로
빈곤퇴치에 기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조는 빈곤감소를 위해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ODA
사업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 현장에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빈곤퇴치에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ODA 정책에 있어서도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타 원조기관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아동권리를
범 분야 이슈로 주류화했고,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을 개발협력의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정했다. 호주 국제개발청(AusAID)은 아동을 5대 전략목표 중
△생명구제 △모두를 위한 기회증진의 핵심적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모든 개발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아동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아동보호 체계 마련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KOICA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KOICA는 시민단체 아동보호
TF(월드비전·세이브더칠드런·어린이재단·KCOC)
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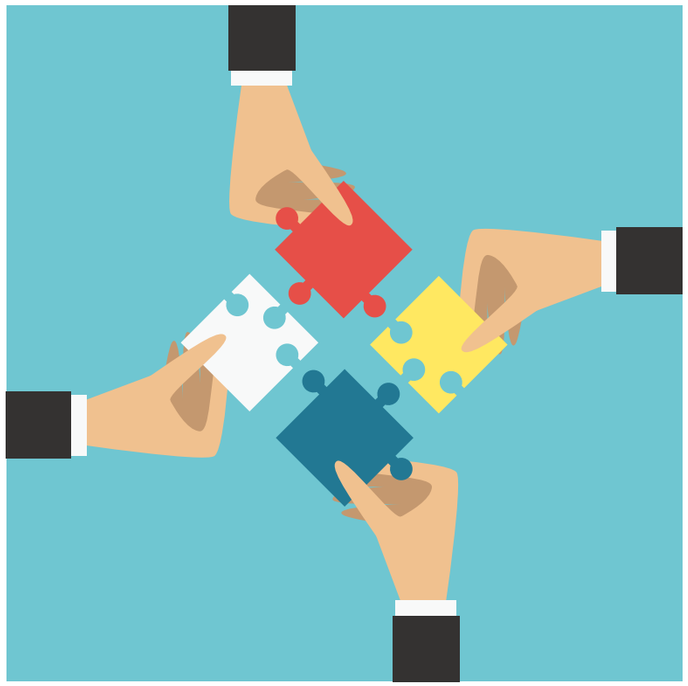
KOICA는 ODA 사업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직원의 책임과 역할 인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에 아동보호 내용 반영, 이에 따라 임직원 및
사업수행자 모두 아동보호 의무를 지니게 하였다.
또한 민관협력사업 개발협력파트너의 자발적 규범화를 위해 아동보호
내용을 포함한 DAK 행동강령을 마련 중이며, 민관협력사업 추진 절차상
아동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현장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해 현재 봉사단 국내 교육 시
'아동보호'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추후 봉사단 국내
교육 커리큘럼 개정 시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아동보호 정책이 도입되고, 실행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아동 분야 전문성이 있는 아동 NGO단체를 중심으로 아동사업
확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아동사업 확대에 따른 아동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이 국내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글 박선경(교육보건팀 직원)

KOICA 국제기구협력사업

국제기구와의 협업 통해 지구촌 개발 현안 해결에 동참

KOICA의 사업 중에는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사업들도 다수 눈에 띈다. 이는 각 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더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것. KOICA의 다양한 국제기구협력사업의 현황과 의미를 전한다.



전 지구적 도전과제를 이루는 데 있어 특정 기구나 국가의 영역이 따로 존재할 리 없다. 오히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국제사회 기구들이 공조할수록 더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KOICA 역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지역 및 분야적 한계를 뛰어넘고 더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국제기구협력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UNDP, UNICEF, WFP, UNHCR, WHO가 주요 파트너

KOICA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중점협력기구와 그 외 다양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2개 기구와 15건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양적 확대와 품질 제고

개발 사안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책임이 따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성도 증대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 이후 정부의 ODA 확대 기조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과 기준을 정비하고, 직원들의 국제기구 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효율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자협력전문가(KMCO) 제도 운영으로 해외 인력 진출도

KOICA는 2013년부터 다자협력전문가(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제도를 운영해 개발협력 인재들을 국제기구 현지 사무소에 파견해 사업 효과성 제고와 해외 인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2013년부터 총 43명이 국제기구 국가 사무소에서 KOICA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활동이 종료된 18명의 다자협력전문가 중 14명이 국제기구 등 개발협력 분야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글 박지영(다자협력인도지원실 대리)

25th ANNIVERSARY SDGs

KOICA Roa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KOICA 로드

2016.03.31 — 2017.03.18

운영일시 | 월~토요일 (일, 공휴일 휴관)
운영시간 | 10:00~17:30 (17시 입장마감)
전시안내 | 10시, 14시, 15시 (예약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031-740-0711
위 치 |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지구촌체험관

KOICA 지구촌체험관 GLOBAL VILLAGE